

TV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times and channel number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times and channel numbers.

“음악·예능 모두 소통이 중요해요”

6집 앨범 ‘일레븐스 스토리’ 발표 가수 김중국

김중국(34)은 예능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확실 히 친근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중국’이라는 ‘착하고 편한 남자’의 이미지를 얻었다. 덕분에 자신이 생각하는 김중국과 대중이 생각하는 김중국의 이미지 간격을 좁혔다는 그는 27일 6집 ‘일레븐스 스토리(Eleventh Story)’를 발표했다.

다. 음반을 만들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랑을 포용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프로듀서로 나선 6집을 만들기 전, 널리 사랑받은 터보 시절 음악을 다시 들었다. 이 음악들을 되새김질하며 이번 음반의 기준점을 잡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멜로디 라인과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이야기를 담아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간 ‘한 남자’, ‘사랑스러워’, ‘제자리걸음’ 등 ‘뽕끼’있는 멜로디의 ‘착한’ 노래만 불렀다는 그는 이번에도 대중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반에 충실한 곡들을 대표곡으로 내세웠다. “타이틀곡 ‘이 사람이다’와 수록곡 ‘잘해주시마요’, ‘웃어’는 편하고 밝고 착한 노래들이죠. 좀 다른 점을 꼽으려면, 몇몇 노랫말과 멜로디가 다소 공격적이에요. 저는 제 성격처럼 슬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여운을 남기는 노래를 주로 불렀는데 ‘웃어’는 ‘눈물 나도 너만 사랑해~ 너만 알고 너만 원해’라고 감정 표현이 확실하죠. ‘구인광고’에서는 래퍼들이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그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음악처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4-2005년 예능 프로그램 ‘X맨 일요일이 좋다’를 통해 ‘윤은혜의 남자’로 호감도를 높인 그는 ‘패밀리가 떴다’를 통해 소탈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지가 선포되었다. <연습생>

Section for '전국체전 일반부 광주대표 선발전' (National Sports Meeting General Division Gwangju Representative Selection Match). Includes a Go board diagram, match details (정식 결승 2국 2보 (14~36)), and a list of players (白 문병권 5단, 黑 김상진 5단).

Section fo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for today).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dates, along with brief descriptions of their daily fortunes.

Large section for language learning. Includes '귀모닝 잉글리쉬' (Morning English) with a fruit stand dialogue, '오하오우 니혼고' (Ohaohau Nihongo) with Japanese phrases, '이하오 쑹구위' (Lihao Songguwei) with Chinese phrases, and '한자 이야기' (Hanja Story) with a '귀귀천목' (귀귀천목) idiom explanation.